

‘AI·지역상품권·공공배달앱’ 정부 추경 반영 총력전

AX실증밸리 6천억·지역상품권 633억
姜시장 “증개수수료 상한제 입법도 건의”

광주시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AI, 지역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비상경제집결지’를 구성하고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 현안 사업인 AI, 지역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 등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AI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AX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6천억원이 즉시 반영돼 광주 AI 2단계 사업이 멈춰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골목 경기를 부양시킬 마중물 정책”이라며 “현재 지방비 중심 구조에서 국비 지원율을 70%로 높이고 연중 10% 할인율을 제공하기 위한 국비 633억2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는 지난해 8월 ‘배민 독립운동’을 펼쳐며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배달플랫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공공배달앱 점유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힘만으로

는 부족한 만큼 이번 추경에서 국비 11억원 반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대형 배달앱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내일 국회를 찾아 ‘배달증개수수료 상한제’의 조속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실은 중심으로 AI융합사업단과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AX실증밸리,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창업캠퍼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산업실 개편을 시사했다.

강 시장은 “다만 곧바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여부가 광주 AI 관련 사업들의 정부 추경 반영 추이를 살피면서 인공지능산업실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I융합사업단은 ‘원스톱 기업-실증-인재양성 강화’와 AX실증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을, AI산업위원회는 지역 기업들의 요구와 AI산업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주간 여의도 집무실’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한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며 “내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향후 계획과 전략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김치’ 더현대서울 팝업스토어 ‘김치의 본고장’ 광주에서 담긴 ‘광주김치’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시민들이 김치를 구매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도, 출자·출연기관 정보보안 역량 강화

전남도는 9일 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정보보안 교육’을 개최해 보안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는 100여명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이 참석했으며 실무 중심의 강의와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국가정보원과 KT 관계자들은 최근 공공기관과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의 동향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초급 보안관리자의 역

할과 책임,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과 주요 보안 위협 유형을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 ICT보안팀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보안성 검토 절차와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 요령, 운영체제 및 백신의 정기적 업데이트 방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 일상 업무 보안 수칙을 실무 중심으로 교육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바이오 신산업 전략’ 모색

박세필 제주대 교수 초청 ‘전남포럼’

국가 대형 R&D 사업 유치 등 강조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를 초청, 전남포럼을 열어 급변하는 첨단 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전남도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미래 바이오 신산업 전략을 모색했다.

‘전남 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박세필 교수는 “전남은 일찍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 유일 화산백신 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첨단 바이오 기술력과 선도적 연계사업을 기반으로 국가 대형 연구개발(R&D)을 유

치한다면 단순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세계 바이오 신약 개발의 파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포럼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화순 생물의약산업에서 지역 바이오 상장 1호기업인 ㈜박셀바이오 본사 신축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개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성과를 이어가며 향후 ‘웹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여름철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신고하세요”

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호우·태풍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빗물받이 막힘 ▲강풍 붕괴·포트홀 등 시설 파손 ▲강풍 위험 ▲감전사고 대비 전기시설 위험 등이 있다.

산사태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호우로 인한 ▲

비탈면 등 토사 유출 ▲낙석 위험 ▲주책가 등 주변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관리 미흡 등이 있다.

폭염 관련 위험 사항인 ▲그늘막·무더위 쉼터·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물놀이 안전 관련 위험 사항인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도 신고 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는 킷메뉴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누리집에서는 ‘안전신고-여름철 집중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전국소방제전 개막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7회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제전’ 개최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THE 28TH MUAN LOTUS FESTIVAL

제28회 무안꽃축제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
무안 SUM : ON

6.26.목 - 6.29.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